

1/25/15

설교 제목: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계 1:8

(계 1: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역사를 보는 관점은 사람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순환론적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관은 역사는 원처럼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인도교나 불교에서 주장하는 윤회설(輪廻說)이 바로 이 역사관에 바탕을 둔 이론입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민족이나 나라들은 삶이 좀 느긋하고 발전이 늦습니다.

이번 생에 못이룬 것이 있으면 다음 생에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실존적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관은 역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단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순간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생은 역사 속에서 점과 같은 한 순간을 살고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민족이나 나라들은 대개가 쾌락주의적 인생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없는 가운데 다만 찰라에 몰두하여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즐길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내손에 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것만이 관심사가 됩니다.

3) 목적론적 역사관 (종말론적 역사관, 기독교적 역사관) 입니다.

이 역사관은 역사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작점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끝을 향해 가는 것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역사관이며 종말적인 역사관입니다.

본문입니다.

(계 1: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 (A) 는 헬라어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 (Ψ) 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우주의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시라고 직접 장엄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 1: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심판 주로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정적 승리의 날임과 동시에 사단에게는 결정적인 패망의 날입니다.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첫 시작과 성경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수도 없이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1. 역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Domitianus) 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함께 노골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모든 나라에 도미티아누스 상(像)을 세워 놓고 그 상을 향하여 “시이저(Caesar / 황제)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황제 숭배를 받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갖은 핍박 가운데서도 올곧게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만을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시이저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추방되고, 순교를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며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 1: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다, 그분이 창조자요 마지막 완성자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 속에 들어 있는 중요한 강조점은 처음을 처음 되게 하시고 마지막을 마지막 되게 하실 그분, 하나님께서 이천년 전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만물은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섭리자요, 진행자요, 주관자이십니다.

그 다음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은 결국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끝날 것입니다.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혹독한 핍박 아래 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역사 속에 과연 주님이 일하실까? 역사를 주님이 주관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환난이 있을 수 있을까?" "주여! 당신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용기를 불러 넣어 줄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2. 우리 개개인의 삶의 주인도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개개인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계 1:17)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기서 우리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씀이 역사의 처음에 이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았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엄위하시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 앞에 모든 사람은 엎드려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그때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니”

당시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 당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밧모 섬에서 귀양살이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절망감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은 이렇게 외딴 섬에서 끝나고 마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미래란 것이 있는 것일까?” “내가 소망을 가져도 되나?”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까?” 별의 별 생각이 다 그의 생각과 영혼을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을 보이시며 나타나신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회에 젖었을 것입니다.

“아, 이 밧모 섬의 주인도 주님이시구나!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내 삶의 주님이시구나!”

이 장면은 이사야가 여호와를 뵈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사 6: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도

하였다

이사야는 주님을 만나게 되자 두려움에 떨니다.

마땅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 순간 주님 손의 따스한 체온이 전해지며 자애로운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말라!”

아, 주님! 벅찬 가슴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회한이 사라지고 복받치는 기쁨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 48:12)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사 48:13)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찢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사 44:6)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속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신 그분이 창조자요, 구속자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7,18 절 다시 보겠습니다 .

(계 1:17)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계 1:18)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절망과 공포와 낙심과 두려움 속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살아 있는 자니라! 나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느니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단다!”라고 말합니다.

3. 역사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 1:8)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것은 역사에 대한 그분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요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인생 속에서도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인생의 시작이 나왔느니라. 네 인생의 마지막도 나이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역사속에서 한 개인을 섭리하시면서 동시에 이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역사는 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이 역사 속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기대와 뜻,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4.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을 궁극적 승리자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계 1:18)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한없는 고독과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지금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덮쳐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내가 쥐고 있느니라”

죽음의 영역, 아니 그 다음의 영역까지도 지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 죽음 이편에서만 살아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 저 건너 편에서까지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롬 8: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롬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롬 8: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롬 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롬 8: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롬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롬 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늘과 땅의 심판자요, 창조자요, 주인이신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자, 구속자 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위험, 칼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확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보장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영원토록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